

전 남

■ 광주·나주·화순 축협 '단체급식 사업단' 가보니...

“학생들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

HACCP 인증받아 직접생산 고기 30여개교 납품

지난 16일 찾은 광주시 광산구 평동 소재 광주축협 단체급식 연합사업단.

1층 사무실에 들어서자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돼지고기를 응도별로 나누는 작업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광주·전남 3개 축협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에 발 벗고 나섰다.

광주축협(조합장 안명수)과 화순축협(조합장 송태평), 나주축협(전준화)은 지난해 10월 '단체급식 연합사업단'(이하 연합사업단)을 구성하고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에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고기가공을 각각 맡고 있다. 연합사업단은 현재 초등학교 20·중학교 7·고등학교 3개교 등에 단체급식용 고기를 납품하고 있으며 앞으로 납품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개 축협이 단체 급식에 뛰어난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고 축산농가의 판로를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가공장은 지난해 10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아 위생적인 납품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대체로 HACCP 지정업체는 담당자만 전문기관의 교육(4시간)을 이수하지만, 연합사업단은 최정기

(36) 단장이 직접 24시간(2박3일)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원료육 미생물(대장균·살모넬라균 등) 검사와 청결도 검사를 하는 실험실을 직접 운영하는 등 자체 위생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

연합사업단은 앞으로 광주시교육청과 연계해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초·중·고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축산물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명수 광주축협 조합장은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일부 유통업자들이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유통·판매해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도축·가공·판매·단체급식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유통구조를 구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안명수 광주축협 조합장은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일부 유통업자들이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유통·판매해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도축·가공·판매·단체급식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유통구조를 구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안명수 광주축협 조합장은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일부 유통업자들이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유통·판매해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도축·가공·판매·단체급식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유통구조를 구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안명수 광주축협 조합장은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일부 유통업자들이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유통·판매해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도축·가공·판매·단체급식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유통구조를 구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안명수 광주축협 조합장은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일부 유통업자들이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유통·판매해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도축·가공·판매·단체급식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유통구조를 구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안명수 광주축협 조합장은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일부 유통업자들이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유통·판매해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도축·가공·판매·단체급식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유통구조를 구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안명수 광주축협 조합장은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일부 유통업자들이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유통·판매해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도축·가공·판매·단체급식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유통구조를 구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수박먹고 시원한 여름 나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18일 농협 하나로클럽 남악점 광장에서 초복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장했다. 이날 직거래장터에서는 삼계탕·생닭을 비롯해 수박·철육수수 등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했다.

“청산도 명소화... 완도군수 공적비 세우자”

번영회장·이장단 추진위 구성 3000여명 모금 참여... 10월 건립

완도에서 가장 영세하게 살아왔던 청산도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되자 청산도 주민들이 현지 군수 공적비 건립에 나섰다.

이승열(61) 청산도 번영회장과 이장단 등 40여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향우들과 함께 김종식 군수(사진) 공적비 건립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공적비 건립 움직임에 대해 김 군수는 “군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다”면서 “마음으로 받겠

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청산도를 보고 싶은 관광객이 많아진 만큼 기적을 날게 한 군수에 대한 보답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2002년 민선 3기 완도군수로 당선된 후 민선 4·5기 연임에 성공해 ‘달인 행정’을 발휘했다.

김 군수는 중앙에 건의해 125억 원을 내려받아 청산도에 서편제 돌담정비, 슬로푸드 개발, 국립생태원 등 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청산도는 ‘슬로시티’로 지정되고 ‘세계 슬로길 1호’로 공



식 인증을 받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수년사이 군내에서 가장 영세한 오지섬에서 연간 3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정말 가보고 싶은 섬으로 바뀐 것이다.

이승열 번영회장은 “청산도를 효과 관광지로 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군정을 잘한 김 군수의 공적비를 세우자 한다”는 거론적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열 번영회장은 “청산도를 효과 관광지로 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군정을 잘한 김 군수의 공적비를 세우자 한다”는 거론적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열 번영회장은 “청산도를 효과 관광지로 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군정을 잘한 김 군수의 공적비를 세우자 한다”는 거론적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전남 서남권 기업 하계휴가 평균 3.7일

전남 서남권 기업들의 올 하계휴가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평균 3.7일로 조사됐다.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는 회원사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하계휴가 일수는 전년 보다 늘어난 3.7일로 나타났다.

3일 시행하는 기업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5일 23.7%, 4일 20.3% 순으로 조사됐다.

휴가비 지급 예정 기업은 64.6%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늘었다. 휴가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비도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3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휴가비 지급 예정 기업은 64.6%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늘었다. 휴가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비도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3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휴가비 지급 예정 기업은 64.6%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늘었다. 휴가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비도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3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휴가비 지급 예정 기업은 64.6%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늘었다. 휴가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비도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3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강진 숲가꾸기 '일석이조' 세입 늘고 땀값 공급까지

강진군이 숲가꾸기 부산물로 세입 증대와 땀값 공급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강진군은 공공산림 가꾸기 인력을 활용해 170여ha의 숲가꾸기 사업지에서 발생한 부산물 1900t을 산림내에 방치하지 않고, 톱밥생산물 목재 파쇄기를 이용, 3만3000포의 톱밥을 생산하기로 했다.

군은 생산된 톱밥을 왕겨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1포(40kg)당 3000원에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농업 특구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인 울천면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생산된 톱밥을 왕겨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1포(40kg)당 3000원에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 새 얼굴

“군민 권익 저해하는 제도·규정 폐지”

전 정철 담양군의회 의장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담양군의회 하반기 의장에 당선된 전정철(55) 의원은 “군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제도와 규정을 폐지하고 적극 개선하면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명한 처신만이 향상 군민의 사랑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의회의 무용론’이나 ‘의원의 자질론’이 더 이상 군민의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의회의 문화와 정서를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선인 전 의장은 제5대 의회 부의장과 제6대 전반기 의장 등을 역임했다.

전정철 담양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대나무축제 주제 공모

담양군은 8월 10일까지 내년 '대나무 축제' 주제를 공모한다.

그동안 군은 ▲대 바람소리 담양 환상곡(2008년) ▲자연 그대로 향기로운 담양(2009년) ▲푸른 속삭임, 대숲 이야기(2010년) ▲건강대숲, 녹색침포(2011년) ▲대나무의 신비, 문화예술의 만남(2012) 등 주제로 축제를 개최했다.

문의(061-380-3151) /중부취재본부=정재근 기자 jgg@

Advertisement for Kijh's 30th anniversary. It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on a horse, the text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cross Korea.

Advertisement for a live performance by Jose Feliciano. It includes the text '팝의 전설을 만나다! 그레미 어워드 8회 수상에 빛나는 호세 펠리치아노가 전하는 감미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호세 펠리치아노 내한공연', a list of songs, and performance details for September 11th at the Gwangju Cultural Center.